

LG전자, 2분기 역대최대 실적... 로봇·AIDC 등 신사업 탄력

매출 23.8조, 영업이익 1조5791억
가전·전장 등 안정적 수익 창출
HVAC 분야 글로벌 성과 가시화

LG전자가 생활가전과 전장 사업의 성장에 힘입어 올해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프리미엄 제품 판매 확대와 원가 경쟁력 개선, 구축사업 성장 등이 실적을 견인한 가운데 하반기에는 로봇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냉각 솔루션 등 신사업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LG전자는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 23조8265억원, 영업이익 1조5791억원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4.9%, 영업이익은 147% 증가했으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2분기 기준 최대 실적이다.

LG전자는 “중동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환경에서도 생활가전 사업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의 모습.

/뉴시스

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갔고, 스포츠 이벤트 효과와 전장(VS) 사업의 성장세가 더해지며 전사 매출 확대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영업이익은 매출 성장과 함께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비중 확대, 원가 경쟁력 개선 노력 등이 반영되며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미국 수출 물량에 대한 관세 환급액도 일회성 수익으로 반영됐다.

기업 간 거래(B2B) 사업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2분기 B2B 매출은 6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으며, LG 이노텍을 제외한 전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를 기록했다.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한 구축사업 매출도 6600억원으로 전년보다 5% 늘었으며 해외 시장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

사업부별로는 생활가전 사업을 맡고 있는 HS사업본부가 매출 7조757억원, 영업이익 6859억원을 기록했다. 분기 기준 처음으로 매출 7조원을 돌파했으며, 프리미엄과 볼륨존을 동시에 공략하는 ‘투트랙’ 전략과 공급망 최적화, 구축사업 확대 등이 실적을 뒷받침했다.

TV사업을 하는 MS사업본부는 매출 5조1146억원, 영업이익 2194억원을 기록했다. OLED와 QNED 등 프리미엄 TV 판매 확대와 webOS 플랫폼 사업의 성장세가 실적에 기여했다.

전장 사업을 맡고 있는 VS 사업본부는 매출 3조259억원, 영업이익 1912억원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2분기 최대치를 기록했다. 분기 매출은 2개

분기 연속 3조원을 넘어섰고 영업이익률도 6%를 웃돌며 안정적인 수익성을 이어갔다.

냉난방공조 사업을 담당하는 ES 사업 본부는 매출 2조7261억원, 영업이익 2358억원을 기록했다. 해외 에어컨 판매 확대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갔으며 영업이익률은 8.6%를 기록했다.

LG전자는 하반기에도 생활가전과 전장 등 주력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로봇과 AIDC 냉각 솔루션 등 신사업 육성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냉난방공조(HVAC) 사업에서는 AIDC 냉각 솔루션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독자 개발한 냉각수분배장치(CDU)가 글로벌 AIDC 공급망 진입을 앞두는 등 사업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SK하이닉스, 채용체계 전면 개편

최태원 회장 ‘AI시대 인재상’ 전형 반영
자소서 폐지... 반나절 심층면접 도입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생각 근육(근원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 확보를 위해 채용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고 ‘반나절 심층면접’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지원자의 AI 활용 능력과 문제 해결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 방식을 바꾼다.

SK하이닉스는 오는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신입사원 수시채용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모집 직무는 설계, 소자, R&D공정, 양산기술 등 주요 직무 전반이며, 근무지는 이천, 청주, 분당, 서울 등이다.

이번 채용 개편의 핵심은 반나절 심층면접 도입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강조해온 AI 시대 인재상을 채용 전형에 반영해 기존의 짧은 면접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지원자의 문제 해결 과정과 AI 활용 능력, 직무 전문성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SK하이닉스는 20~30분 안팎으로 진행되던 기존 면접에서 벗어나 반나절 동안

심도 있는 과제 수행과 인터뷰를 진행한다. 지원자의 직무 전문성은 물론, AI 응용 능력, 인문학적 소양, 논리적 사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서류 단계 역시 이러한 역량 중심 평가 기준에 맞춰 전면 개편된다. SK하이닉스는 기존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없애고, 지원자가 보유한 ‘AI 활용 역량’과 ‘반도체 직무 전문성’을 기술하는 신규 서식을 도입한다. 단순 스펙이나 형식적인 소개 대신, AI를 업무에 유연하게 적용하고 현업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서류 단계부터 정교하게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채용 설명회 방식 역시 기존 대학 캠퍼스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거점형 리쿠르팅으로 전환한다. 서울, 청주, 대구, 광주 등 4개 지역에서 채용설명회를 열어 특정 대학교 재학생에 국한하지 않고 반도체 산업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 및 차세대 인재들에게도 산업 비전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차현정 기자



metro

공정위, 바이오연료 7개사 담합행위 제재

9.7조 입찰 영향... 과징금 2조대 전망

친환경 대체 연료인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 시장에서 무려 11년 동안 9조 7000억 원 규모의 입찰을 담합한 제조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7개 바이오연료 제조·판매사(이하 피심인들)가 연루된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관의 위법성,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담합 가담사는 디에스단석, 애경케미칼, 에스케이에코프라이, 에스케이케미칼, 이맥솔루션, 제이씨케미칼, 케이지에코솔루션 등 7개 바이오연료 제조 판매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2013년 12월 경부터 2025년 10월경까지 약 11년 3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입찰 담합 및 물량 배분 합의를 해온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바이오디젤 7조 7600억 원, 바이오중유 1조 9500억 원 등 총 9조 7000여억 원에 달한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의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 및 물량담합 위반으로 보고, 향후 금지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과징금 규모는 2조원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

2026
북항 오션
SUP
FESTA
07.31 FRI - 08.09 SUN
북항 친수공원 및 랜드마크 부지 일원

주최·주관 | 부산광역시 | 참여기관 | 해양수산부 | Nice junggu | BPA | 부산항만공사 | 부산영상협회 | 영화의전당